

家族長、郎黨、市民、或은奴隸、이와가치三階級이  
있었다。그리하여貴族等上流階級이 政權을獨弄하  
고 卑劣인는反面에 市民即平民들은 農業或은牧  
畜을 常業으로써하고있었다。그런데그들은 每年  
戰爭을爲하여 軍役に盡力하고 또는過重한租稅를  
加擔하고있었다。

그러나그들의게는 參政權을與치아니하였으므로  
덕욕의욕히 貧困한狀態에 窮迫되어있었다。그렇  
으로 當時政治家貴族들은 此를機會로하여그들의  
계 高利의金錢을貸付하고 返済期에至하여 返済  
不可能한時는 債權者의奴隸로 使役케하였다。그  
런가함으로 그들은農業을廢止하고 繁華한都會에  
集會하여 劇場酒場等에亂入하여 享樂하다가 金  
錢이罄서지는데는 夫始가한가지 放浪한旅路에定  
處업지 떠나게되었다。그럼으로當時의野心家들은  
此等貧民을利用하여 劍客或은猛獸格闘技를 보혀달  
던케한後 彼等을買收하여 金錢을殖潤하는道具로  
써 부리기를마지아니하였다。그런가함으로平民의  
反感이日時로濃厚하여 結婚法의改正과 戰爭의功  
勞에依하여 平民의困窮을 救濟하자는소리가덕욕

히늘게되었다。

그로서 저—구랏구스가 細民의歡心을사기爲하  
야殺法의法令을發布하고 穀物分配의制度를設하며  
穀物價額을制限하고 高價를嚴禁하여 3개人心을收  
攬하였다。그後歷代의政府는 德政을피치아니하면  
아니되리라하여 저—시자—가 市場의物價를定한  
일도있으며 公共沐浴場의法制를設하여 實施한일  
도있었다。그리하여學者들도 다시한가지社會改造  
를行코저하여 資本家가閉財를 獨占함을抑壓하고  
農業法을改正하고 穀物施與等의慈善事業을行하였  
다。그러나此等은 何를勿問하고政略을 中心으로  
한思想에지나지아니하였다。

그러나此를 理想及理論上으로부러 볼入것가르면  
저—스도아學派의議論이 盛行한지다 그의影響이  
안흔듯하다。彼等은理想圖을描出하여 世界同胞主  
義를唱道하고 正義와博愛를主張하며 그리하여저  
—세네가물始하여 奴隸廢止를絶對하였다。그러나  
羅馬時代에는 政略을中心으로하는同時에 罪業消  
滅이라하는 求報主義도있었다。報그리나하면 當  
時下流階級에屬한職工이며 奴隸中에 隱密히盛行

하야승은慈善事業을 行한것은 基督敎였다。저—  
基督敎徒는 多大한慈善事業을 實施하였다。그事  
業의가운데 現著한것을들入것가르면 監獄改良、日  
曜學校、救世軍組織、基督敎青年會、女子青年會等

의組織이었다。此等の活動은 다—神意를實現하는  
以外다른野心이업다고하나 그裏面에는또한 求報  
主義의思想이潛在한은 隱藏할수없는事實이었다。

### 吾人の佛敎信仰과理由 (續)

朴 三 千

#### 敎主의 人格

元來人生이 難何事勿論하고 그自身이 微賤하고  
貧窮한 逆境에處하여서는 될수있는대로 그微賤  
을승기며 患難을비서나서 安穩하고名譽있는順境  
을希求하라하여 困苦한難行이라도 能行하라함은  
그리大端치안호容易한일이지만 世上에서 다시  
더바랄入것업시尊貴하고 榮華스러운順境에處하여  
잇스면서 尊貴榮華以外에 그무엇을希求하여 尊  
貴한地位·富有의財産까지拋棄하고 困苦한逆境을  
달개取하라함은참으로 極難한事實일入것이다。

貧窮한子弟로서는 銅山金穴의富貴를期待하고

景祿繁祉의福慶을希求하여 深刻한工夫를勤勉하기  
는容易한일이지만 執務子弟로서 刺股穿壁의古  
人을본바다 腦髓를써켜가면서 애써勤勉하기는참  
으로極難한事實일入것이다。

暴惡한專權의勢力에壓迫되어 侵奪榨取를無難히  
當하는賤民으로서는 能히革命의思想을 품어 露西  
亞의大革命가치爆發되기는容易한일이지만 官位  
는榮職에오르고 勢力은四海에떨쳐는 特權階級의  
人物로서는 能히革命運動의先鋒이되야 佛蘭西의  
大革命가튼것을破裂시키기는 참으로어려운것이다  
眼光이爛爛하고 辯舌이流暢하며 容貌가端正하  
고 威風이凜凜하여 言行一致의美德으로 人의信

用을 一身에 集積하여 一神敎를 創造하고 荒唐한 巧言으로 民心을 利用하여 아라비아 全半島을 統一케 한 回回敎의 教主 英傑 마호메드는 「백과」의 「微賤한 貧家에 誕生한 貧者」로 幼時에 孤兒가 되어 伯父의 집에서 어덕하지 아니 못하게 될 可憐한 運命에 處하였다 後에 그는 生活의 道를 求得키 爲하여 「아라비아」의 大沙漠을 橫行하면서 微賤한 駱駝行商까지 從事하였다 그리다가 宗教에 뜻을 두어 唯一의 上帝를 信奉하고 自稱豫言者라 하면서 自敎를 布敎하다가 多神敎를 信奉하는 「백과」市民의 迫害를 蒙아 「메디나」로 避難까지 하게 된 運命에 至하였었다 然則彼도 卑賤하고 困窮한 運命에 處하였던 人物로서 偉大人格을 發揮한 者라 아니 할 수 없다.

人性을 調和하는 禮樂으로 人民의 意志를 鍛鍊하여 智勇이 兼備한 「仁」이라는 無差別境界에 이르게 하고 社會의 基礎를 純美케 하는 孝悌忠恕의 本方으로 治國平天下에 主眼을 두어 純粹한 美德을 敎養하여 完全無缺한 社會를 形成하라는 東方의 偉人인 孔子도 魯의 昌平鄕 陬邑이란 寒村貧家에서 誕生하시었다. 그리하여 一個 微賤한 官位에 仕하다가 後에 列國에 周

遊할새 匡에 畏하고 宋에 厄하며 鄭衛에 彷徨하고 陳蔡에 窮하면서 東西患難에 煩悶苦痛하고 不遇時運의 悲嘆을 連發하시었다 後에 다시 魯에 歸하여 古書 整理에 從事하다가 泗水의 邊에 一抔土로 化하고 말았다 그의 生前은 이리 微賤하고 單純하였다 至聖 文官王이란 五字 諡號도 그의 死後에 唐의 玄宗이 文宣王三字를 지어 바치었고 宋의 眞宗이 다시 至聖二字을 加하였다. 어쨌든 孔子도 亦是 貧窮하고 微賤한 運命에 處한 人物로서 偉大人格을 發揮한 者의 一人이다.

「上帝께서는 將次一使者를 보내리시어 全世界를 救濟한다」하는 猶太人의 傳說를 利用하여 自己가 天의 獨生子라고 自稱하여 仁慈平等 貧苦謙遜이란 主旨로 神의 王國의 實在을 鼓吹하면서 東西四方으로 傳道하기에 一生을 바치어 西歐文明의 道을 이르고 西歐人士의 崇拜의 目標가 된 偉人基督은 卑賤한 一木工인 「요셉」과 微賤한 一村婦인 「마리아」를 父母로 하고 嚴冬雪寒十二月二十五日 道中客舍의 馬廐間에서 誕生하시어 幼童에 다 尺음을 量치다 生長하여는 木手의 業으로 僅僅히 生活하다가 後에 迫害한 바 되어

強盜殺人의 重大罪人과 가지 十字架上에서 鮮血를 流리며 悲慘한 最後를 맛추었다 그의 짧막한 一生은 이 가지 苦痛迫害의 悲慘한 逆境이 었었다. 그의 卑賤은 孔子「마호메드」以上の 卑賤한 者이 었으며 그의 逆境은 孔子「마호메드」以上の 逆境이 었었다.

三界의 導師요 四生의 慈父이신 釋尊께서는 如何한 偉人이신가 巖巖한 雪山의 麓과 洋洋한 恒河의 濱을 背景으로 하여 文化의 光彩가 宇內에 先發한 中印度 迦毘羅國 皇太子로 誕生하시어 幼時로 부터 一知百의 絶大한 聰明의 所有者로서 當時의 碩學을 壓倒할 만하시었다 芳年에 일오리 絶世의 美人 耶輸多羅王女를 妃로 하시고 貴여 尊皇孫 羅睺를 낳하시었다 當時에 그 歡樂과 幸福이 그 일마나 融融하였고 燦爛하였스라

人生의 最高인 皇太子의 權威 山野에 徧滿한 無盡의 寶藏 月態花容인 사쌍의 耶輸 天真爛漫한 貴여 尊愛子 麗天綵地의 絶倫한 武藝 一聞千悟의 絶大한 聰明! 이 후에 다시 希求할 것이 무엇이랴 부러울 것이 무엇이냐 이가 온 榮華外에 머지 榮華가 어데잇스며 이가 온 順境外에 머지 順境이 어데잇스라.

그러나 人世가 한 雙眼에 接觸되고 疑團이 한 疑團에 發芽되자 尊貴한 皇位도 마음 到하지 않고 사쌍의 妻子도 시러 지 갈 뿐이 었다 皇太子는 드디어 罪惡으로 懊惱하는 衆生의 苦를 救濟키 爲하여 各自具有한 天賦地秘와 玄門妙海를 開發指示키 爲하여 斷然히 尊貴한 皇位와 사쌍의 妻子를 버리고 單身으로 苦行林에 드러가시어 皮骨이 相連하고 筋脈이 露出하도록 深刻한 研究를 十餘年이나 繼續하시어 結局 宇宙의 大真理를 獲得하시었다 自己의 究得한 道를 高貴한 王公以下로 卑賤한 下民까지 이르히 조공도 差別없이 平等히 說示하시어 衆生을 指導하고 救濟하시기 후 五十餘年에 八十歲의 高齡으로 百萬弟子의 哀悼下에서 高요히 涅槃에 드르셨다.

그런즉 已上 三大偉人의 一生은 比較的 困苦한 逆境이 었었고 釋尊의 一生은 榮華스러운 順境이 었었다. 三大偉人의 貧窮家의 子弟와 微賤한 下民에 다 比한 다면 釋尊은 富貴家의 貴公子며 尊嚴한 君主이다 그러면 釋尊은 能히 富貴家의 子弟로서 貧窮家의 子弟보다 倍一層 勤勉하시었고 特權階級의 人物로서 壓制를 當하는 賤民보다 率先하여 革命運動의 先鋒이시

있다. 二印 富貴家의 貴公子로 特權階級의 人物  
釋尊의 人格은 貧窮家의 子弟로 壓迫을 受하는  
賤民의 人物인 三大偉人의 赫赫한 人格보다 十倍百  
倍가 超勝하지 않구나!

아! 團圓한 月光이 재야 모리 明朗하드래도 赫赫  
한 日光의 五十萬分之一에 不過한 것이다.

진실로 釋尊은 難行을 能行하고 難忍을 能忍한 古  
今 獨步의 絶倫한 人格者라고 肯定치 않나 할래야 아니

### 五 戒 心 法 (續)

支那 融 脫 居士 原著  
木 律 學 人 譯

할수업는 偉大한 人格者이다. 이러한 古今 獨步의 偉大  
한 眞覺者이고 眞聖者이심으로써 近三千年 동안 德  
萬의 蒼生을 支配하였고 德德萬蒼生의 崇拜할 目標가  
되얏는 것이다.  
이 힘으로 吾人은 釋尊의 偉大한 人格에 切實히  
感服하는 바이다. 이러한 에도 不顯하고 釋尊의 人格  
을 시골하게 역어는 나어 된 동모어! 猛省하라! 참  
으로 血淚가 스사 날 地境이다.

### 第三 其心不婬

무엇을 婬이라 하는가 무릇 色慾에 耽著하는 것이  
이른바 婬이라는 것이다.

무릇 夢으로 接觸하여 色慾에 耽著하는 者는 眞  
실로 身婬이라고 하려니와 有時 平夢으로 接觸되지

안드래도 뜻에는 別서 色慾에 繫戀하며 色慾을  
攀緣하며 色慾을 希冀하니 이것을 身婬이라고  
는 하지 못하지마는 心婬이라고는 眞諦할 수 있다.  
心婬은 意識에서 이어나서 或은 그 前에 受觸한 者는  
을 追憶도 하며 或은 昔者에 見聞한 者를 貪念하며 或  
은 邪友 戲語의 動搖하는 바를 眞諦이며 或은 閑書 小說의

勾引한 바가 되며 或은 平日에 心目을 收攝지 못한 까닭  
에 愛情을 한 부로 드날려서 色身을 한 번 보면 迷妄  
의 마음이 따라 流轉하며 或은 臨時에 防微杜漸할 줄을  
몰라서 娛樂의 마음은 戲曲에 부쳤다가 色慾이 引起  
되야 邪蕩한 생각을 能히 抑制치 못하니 이러한 種  
種 事件은 或은 內業을 말미하여 自動하며 或은 外緣  
을 말미하여 始生되여서 드되여 淸淨한 本來 心地中에  
淫念의 垢汚가 이어나 재하니라.

心婬이 이러하면 그 害毒은 어떠한가? 첫째는 邪

淫心이 增長되고 道義心이 退減해지며. 둘째는 目下  
에는 心婬이 覺게 아니 되지만 轉瞬間에 身婬까지 되며.

셋째는 本來 無의 淫慾이 熾盛한 者이면 心淫이 熾  
할수록 淫業이 더욱 增長되야 少壯한 者는 名節이 喪  
亡되고 老弱한 者는 身軀를 保存치 못하리라. 넷째는

本來 무의 名譽를 顧惜하야 檢束할 줄 안는 者라도 心  
淫이 忽起하고 보면 一念의 邪妄에 昏迷한 바가 되야 蕩  
檢 離間할 導線이 되여서 一朝에 失足하면 累世가 灰

心케 되나니라. 다섯째는 別서 道를 배워서 發願修  
行한 者라도 忽然히 心淫이 이러하면 비록 身惡은

未成하였을지라도 그 마음은 別서 不淨하야 前에 있

은 바 道力, 功用力이 모두 魔事로 同歸하고 度人한 功  
德도 모두 詐欺와 詐해지나니 能히 淸夜에 懷慚이 있  
스며 對衆에 慙愧가 있스라. 已上에 種種한 過惡이 모  
다 一念不慎으로 이 妄因을 심은 것이니 惡業이 既成  
하면 모든 苦報을 몰려서 現身에는 干淸議·犯王  
章·遭苦惱·禍身家하는 報가 있고 身後에는 生惡趣·  
墮地獄하는 報가 있나니 各其 造業淺深을 따라서 自作  
自受하야 조공도 差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種種 罪惡  
의 原因을 推求한 對 法도 하나도 一念의 心淫에 基因  
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다시 深言할 바가 되면 心淫이 있스면 能히 生死  
에 逆流하지 못하며 心淫이 있스면 能히 輪廻를 根斷  
하지 못하며 心淫이 있스면 能히 煩惱障을 離치 못하  
며 心淫이 있스면 能히 淸淨覺을 成就 못한다.

그럼으로 修心하는 道理는 오직 身淫을 戒하는 데  
만 잊지 안코 더욱 心淫을 戒하는 것이 貴한 바이다.

心淫을 어떻게 戒할 바가 心淫은 視邪色에서  
일어나나니 非禮勿視하여라 心淫은 聽淫聲에서  
일어나나니 非禮勿聽하여라 心淫은 觀言에서 일

어나나니 非禮勿言하라 心淫은 邪行에서 일어나